

■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 / 약국 둘러보니...

“지금 마스크 없다고요?”... 헛걸음 속출

판매시각 안 알려져 시민들 약국 앞 무한 기다리기 도보건당국 오전 11시쯤 ‘오후 5시 판매’ 공지 눈총

“오늘 오전 8시20분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식약처의 안내 문자를 받고 아침일찍 주민등록증을 챙겨 약국에 왔지만 정작 마스크는 오후 5시부터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마스크 판매 시각을 공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9일부터 제주지역 300여곳 약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됐지만 마스크 판매 시각이 도민들에게 뒤늦게 공지되면서 불편이 잇따랐다.

본보가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9시50분 사이 병원이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일대 약국 10곳을 돌아다니며 마스크 구매를 시도한 결과 이 중

9곳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었다. 9일 판매분으로 정해진 마스크 물량이 아직 약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대개 마스크는 당일 오후에 입고된다. 유일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던 약국 1곳은 지난주말 다 팔지 못한 재고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였다.

제주도약사회는 마스크 5부제를 앞둔 지난주말 도내 약국 300여곳에 “마스크를 오후 5시부터 판매하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이런 판매 방침이 약사들에게만 안내됐을 뿐 시민들에게는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날 오전 8시20분 식약처가 도민들에게 발송한 공적마스크 5부제 알림 문자에도 판매 시각은 공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 약국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허탕을 쳤다.

양영은(55·제주시 노형동)씨는 “마스크 판매 시각을 오후 5시로 정했다면 미리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팔과 함께 오전 8시30분부터 약국 5곳을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못샀다.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씨처럼 허탕을 친 오옥선(59·제주시 노형동)씨는 “아침 일찍부터 마스크

를 사러 나왔는데 사지 못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약사회는 마스크 판매 시각을 안내할 책임이 도보건당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판매 시각을 통일해달라는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고 지난주말 판매 시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판매 시각 홍보는 보건당국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도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11시21분 마스크 판매 시각 알림 문자를 발송했지만 이미 상당수 시민들이 헛걸음을 한 뒤였다. 도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주말 마스크 판매 시각을 도약사회로부터 홍보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매상이 공급하는 마스크가 제때 각 약국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알림 문자를 발송해야 했다”면서 “이 때문에 안내 시점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민기자

민간인에게 속수무책 뚫린 해군기지

기지반대 시위자 2명 7일 철조망 절단후 부대 침입 해군 1시간 지나 상황 파악... 관련자 4명 고발초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방어를 책임지는 제주해군기지의 경계가 민간에게 뚫렸다. 특히 민간인들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내로 침입했는데도 해군은 한시간이 지나서야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한 혐의(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로 민간인 4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10분쯤 제주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했고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로 침입해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해군은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10분쯤 경계 근무에 나선 군인들로부터 철조망이 훼손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5분대기조를 출동, 오후 4시쯤 무단 침입한 민간인 2명을 검거

했다. 해군은 이들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대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민간인에게 경계가 뚫리는 일이 벌어지자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해군기지를 상대로 전투준비지원태세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무단 침입한 민간인들은 평상시 면식이 있었던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로 식별돼 퇴거 조치됐다”며 “민군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일부 인원에 의해 이번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제주기지전대로 들어간 민간인들은 지난 2012년 3월 7·8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강행한 구립비 해안 발굴 8주년을 맞아 해군기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태훈기자



“제발, 내 뒀까지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제주시내 한 약국앞에 곳은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 있다. 이상민기자

도내 노인요양기관 58곳 22일까지 휴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중·고교와 어린이 보육기관에 이어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에도 오는 22일까지 휴원을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주간(3월 9일~22일) 노인장기요양기관 휴원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제주 40개소(이용자수 760명·종사자수 390명), 서귀포시 18개소(이용자수 403명·종사자수 202명)이다. 이에 따라 요양 기관은 휴원 권고 기간 사전조치를 이행하면 ‘한시적 코

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10일 인정해 필수 경비(급여비용의 6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사전조치란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 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8일 제가노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와 회의를 열어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할 것과 한시적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경하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은범기자

“관급공사현장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민노총, 공무원 2명 고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관급공사현장에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2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현장에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라고 호소했지만 이들 기관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인데 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조차도 지역 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보장과 불법외국인 고용시 제재를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도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동의안 반려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탈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면서 “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업 입지의 해양 환경과 생태계,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인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급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감골 신품종 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허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망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배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니스 ·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